

스테로이드 치료로 호전된 혈액투석 환자에서 발생한 불응성 요독성 흉막심낭염 1예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내과학교실

홍기연 · 박경미 · 주세경 · 김효영 · 이소영 · 김형중 · 양동호

A Case of Refractory Uremic Pleuropericarditis Improved by Steroid Therapy in Long-term Hemodialysis Patient

Gi Youn Hong, M.D., Kyung Mi Park, M.D., Se Kyung Joo, M.D., Hyo Young Kim, M.D.,
So Young Lee, M.D., Hyung Jong Kim, M.D. and Dong Ho Yang, M.D.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of Pocheon CH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말기신부전으로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심낭 삼출 및 흉막 삼출은 흔하게 보이나 심낭 및 흉막 삼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며, 또한 호흡 곤란 및 저혈압을 보이는 중증의 요독성 흉막심낭염에 의한 삼출은 더욱 드물다. 저자들은 집중적인 혈액투석치료, NSAIDs 사용 등 과거에 알려진 내과적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 요독성 흉막심낭염 환자에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여 호전된 사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67세 여자 환자로 10년 전 고혈압성 신병증에 의한 말기신부전 진단받고 주 3회 혈액투석치료 받아 오던 중 내원 1달 전부터의 흑색변 및 전신쇠약감 증상을 주소 본원 내원하여 헤모글로빈 5.7 g/dL로 심한 빈혈 소견 보여 입원하였다. 입원 당시 흉부 X-선 소견에서 양측에 흉막 삼출 및 심비대 소견 보였으며, 수혈 후에도 지속적인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시행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다량의 심낭 삼출 소견을 보였다. 환자 심낭 천자를 시행 받았으며 1.8 L 정도의 출혈성 심낭 삼출액이 배액 되었다. 또한 흉강천자를 시행하여 늑막삼출액에 대한 검사도 시행하였다. 흉막 삼출액 및 심낭 삼출액 검사상 요독성 흉막심낭염이 의심되어 주 4회 고효율 혈액투석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증상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환자 퇴원 후 개인 병원에서 주 4회 고효율 혈액투석을 시행 받았으나 퇴원 20일 후 호흡곤란을 주소로 다시 본원 내원하였으며, 양측 흉막 삼출 및 심낭 삼출이 증가한 소견을 보였다. 재입원 후 주 4-6회의 고효율 혈액투석 및 온라인 혈액투석여과법, NSAIDs의 사용 및 결핵약을 투여하였으나 증상 호전 없이 양측 흉막삼출액이 점차 증가하는 소견 보였으며, 호흡곤란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반복적인 흉강천자를 시행 받았다. 흉강천자 시행시 흉막조직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중등도의 섬유화를 동반한 만성염증 소견 이외 특이 소견 없어 결핵 감별진단 하에 경구 스테로이드 40 mg (1 mg/kg)을 사용하였다. 경구 스테로이드 사용 1주 후 환자 호흡곤란 등의 증상 호전 및 흉부 X-ray상 심비대, 흉막심낭삼출액 감소 소견 보여 퇴원하였다. 스테로이드는 1달 사용 후 감량하여 퇴원 2개월이 지난 현재 중단상태이다. 요독성 흉막심낭염 환자에서 내과적인 전통적인 치료에도 불응적인 경우 수술적 치료가 적응증이 되나, 수술적 치료 전 스테로이드의 사용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Key Words : 혈액투석, 흉막심낭염, 스테로이드
Hemodialysis, Pleuropericarditis, Steroid